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9. 4 | Vol. 292 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4층 대적광전 오백나한상 봉안 모연문

법왕사에서는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후불로 5백나한상 봉안을 모연하고 있습니다.

나한(羅漢)은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생사윤회의 흐름에 태어나지 않는 성자를 이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오른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16나한'이라고 하며 부처가 열반한 뒤 제자 가섭이 부처의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 때 모였던 제자 500명을 '500나한'이라 하는데 나한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당송(唐宋)시대에 유행했던 나한신앙은 삼국 후기부터 소개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복을 주는 '복전(福田)'의 의미로 추앙받으면서 서민들과 가장 친숙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복전인 나한상 봉안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 1인 1나한 동참금 : 108만원(분할납부 가능)
-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제38회 백고좌법회 회향일 7월 7일
오백나한상 점안식을 봉행합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9
4
Vol. 292호

04 **깨침의 향기**
끝까지 배우는 자세로 정진해야 · 원공당 정무 대종사

08 **비슬산방**
불교를 왜 믿는가? (3) · 실상 주지스님

10 **법왕논단**
연기법적 역관(逆觀) · 본원스님

12 **부처님이야기 – 초기원형불교 자료에 근거(38)**
고따마 부처님의 사리와 유물의 분배 이야기 · 영일스님

16 **불교교리의 산책**
존재간의 법칙 12연기설(緣起說) (6)

20 **명찰 순례**
신라 최초 가람 도리사(桃李寺)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환절기 건강관리 해결!

28 **법왕사소식**

31 **법왕사게시판**

33 **해오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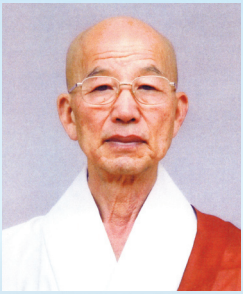
34 **해오름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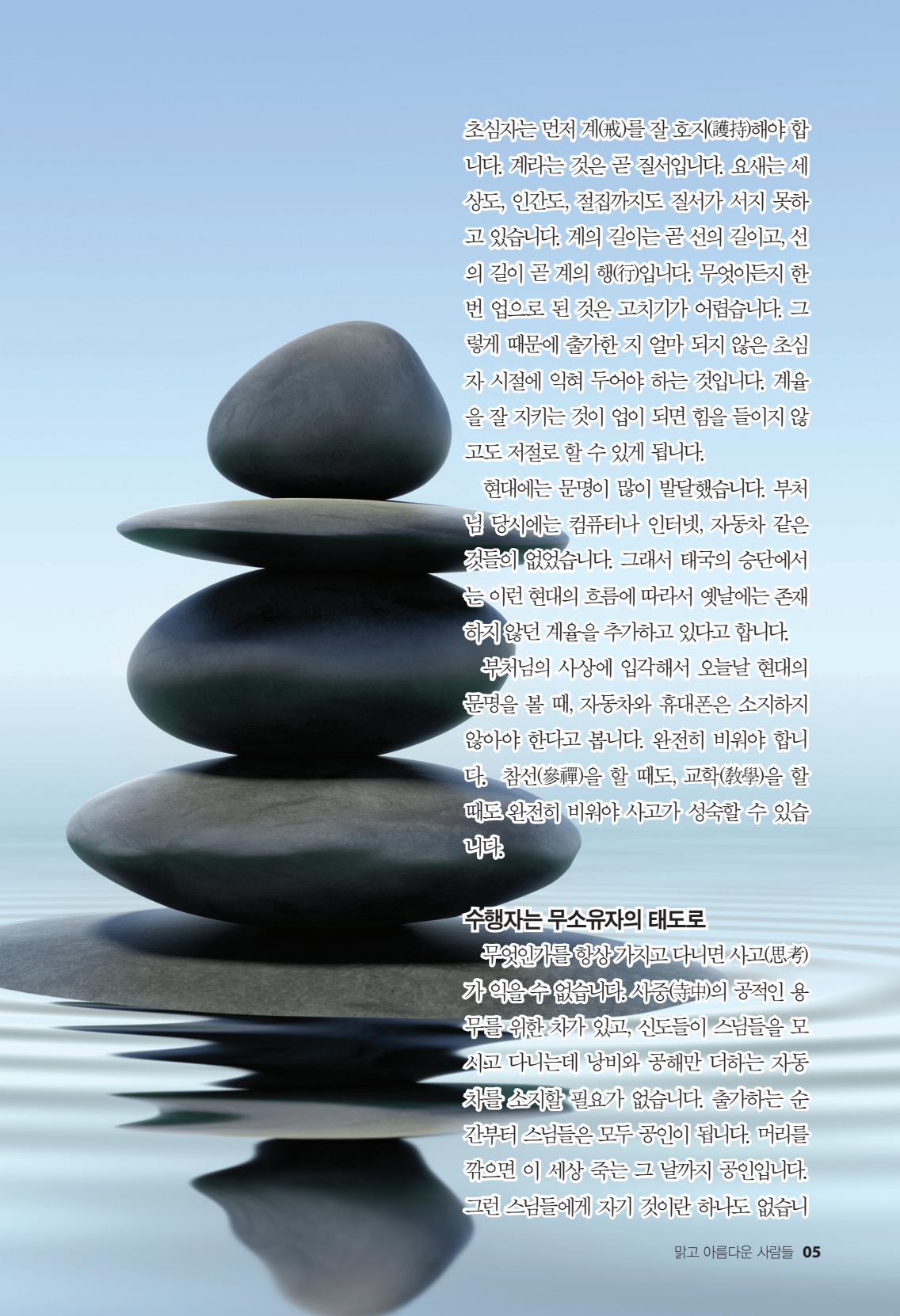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3(서기 2019)년 4월 1일 발행 | **통권**_292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영일, 상촬, 자행, 자윤, 박창모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끝까지 배우는 자세로 정진해야

원공당 **정무** 대종사





초심자는 먼저 계(戒)를 잘 호지(護持)해야 합니다. 계라는 것은 곧 질서입니다. 요새는 세상도, 인간도, 절집까지도 질서가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의 길이는 곧 선의 길이고, 선의 길이 곧 계의 행(行)입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업으로 된 것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 시절에 익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업이 되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에는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컴퓨터나 인터넷, 자동차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승단에서는 이런 현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던 계율을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해서 오늘날 현대의 문명을 볼 때, 자동차와 휴대폰은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참선(參禪)을 할 때도, 교학(敎學)을 할 때도 완전히 비워야 사고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무소유자의 태도로

무엇인가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 사고(思考)가 익을 수 없습니다. 사중(寺中)의 공적인 용무를 위한 차가 있고, 신도들이 스님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낭비와 공해만 더하는 자동차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가하는 순간부터 스님들은 모두 공인이 됩니다. 머리를 깎으면 이 세상 죽는 그 날까지 공인입니다. 그런 스님들에게 자기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

다. 공공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모두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번 익히면 의존증이 됩니다. 어디에도 의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단순해야 합니다. 간혹 세인들이 절에 와서는 산속에서 스님들이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곤 합니다. 심심하면 오히려 수행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조용해야 수행이 잘 되지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은 산사에서 적적함을 느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의 바랑로, 살림살이도 단순하게 비워져야 합니다.

요즘은 노후를 걱정한다고 노후와 황혼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절집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현실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를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노후도 걱정 말고 내생(來生)도 걱정 말고, 오늘 오늘을 충실히 살면 됩니다. 주어져 있는 자기의 의무를 다해서 충실히 잘 살면 됩니다. 그렇게 중노릇을 잘하면 그것이 낳고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해탈하려면 부모를 잘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부모를 볼 때, 자기 부모처럼 똑같이 생각해야 그것이 효도입니다. 닿는 곳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부모님 공경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 법화행자 오종서원(五種誓願), 이것은 『법화경』의 요지를 똘똘 말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지극히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을 배려하고 모시겠습니다.
모든 환경을 정화하겠습니다.
일체 생명을 다 자비로 보호하겠습니다."

『법화경』

이렇게 하면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연의 원리는 곧 도요, 진리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병이 나지 않는 것이 곧 자연건강입니다. 자연건강을 먼저 하고 건강치료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구제하려다가 잘못되면 오히려 같이 빠지게 됩니다. 건강한 것이 곧 반야(般若) 지혜입니다. 정신 건강이 본원청정(本源淸淨)의 실천행입니다.

영양과잉이 도리어 문제

하지만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스님들 중에도 몸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님들에 대한 과잉보호 때문입니다. 원래 사찰의 음식, 생활이 '웰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돈이 흔해지고, 더불어 사찰도 현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 자동차도 많고, 화장실도 재래식이 아닌 수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나태하게 하고, 과잉보호로 병이 나게 하고 엄살을 부리게 합니다. 수행자는 고행자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사찰까지도 변하는 것은 고행자로서 실격이요,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행자에게 있어서, 도반은 선생이 됩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도반이 도의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도반이 도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의 전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도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동업(同業)끼리 만나게 됩니다. 발심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만 친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따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온전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도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4년의 강원을 졸업하고 6년 정도 선원을 다니고 나서 팔만대장경을 독파해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안 되면, 적어도 한글로 나온 팔만대장경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한문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특별히 타고난 사람 외에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사상과 교리가 우리말로써 완전히 이해가 된다면, 스스로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팔만대장경 공부가 최우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면을 밟고 다니지만, 땅에 발이 디뎌지지 않는 것 같이 무게감이 없어져 마치 몸이 지면을 떠다니는 것 같이 됩니다. 저절로 절절히 발심(發心)하게 됩니다. 발심과 함께 세상에 회향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포교, 복지사업, 호스피스 등 무엇이든 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발심의 불이 붙어 일을 하게 되면, 도와주는 인연이 어디서든 나타나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인류가 살아남을 길은 부처님의 법, 불교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부르짖지 않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불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이대로 완전하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나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 곧 보살이다."라는 확신의 암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님들은 부처님의 불사(佛事)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는 보살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학생입니다.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엄살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디에도 의존증을 갖지 않고 젊으나 늙으나, 사바세계 불교대학 보살학과의 학생으로서 학생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입학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면 졸업을 할 것이요, 공부를 못해서 재수생이 된다면 처참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탈(解脫)을 하라는 것이지 재수를 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006년 11월, 동학사 승가대학

불교를 왜 믿는가?(3)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의 끌어 내리는 힘(인력)을 깨닫고, 이것에 따라 해, 달, 별의 움직임에 관한 이치를 깨달아 드디어 만유인력(모든 만물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이론)이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한 사람이 뉴턴 에게 부탁했습니다.

"그와 같은 대발견을 이룩하기에는 필시 남이 모르는 궁리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뉴턴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특별한 궁리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늘 하나의 의문이나 연구문제가 마음에 떠오르면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생각한 것뿐이었습니다."

위 예화에서처럼 어떤 특별한 계시나 힘이 있어서 만유인력이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세밀한 관찰력, 해답이 풀릴 때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는 근면성이 원인이 되어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고 하셨습니다.

즉 연기(緣起)란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줄임말로서 흔히 연(緣)이라고도 씁니다. 연이란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원인을 가리키는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의 길흉의 징조나 남녀 특히 결혼과 관계되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연(善緣)또는 악연(惡緣) 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하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겨난다." 고 하는 것이 연기설 입니다.

연기설은 부처님이 만드신 것 입니까?

모든 것은 절대자(神)가 만들었다고 하는 가르침에 익숙해온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에서는 진리 자체도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리는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잡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그 누가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래의 존재와 무관하게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여래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깨달음을 완성한 뒤에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해서 연설하고 이를 드러내 보이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래(如來)는 진리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오신 분' 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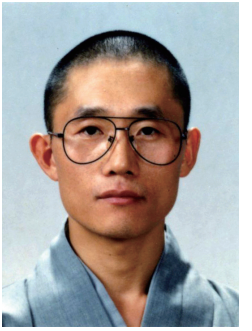
위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연기의 법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이므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연기법칙을 이해하고 연기의 법칙에 맞게 살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 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연기를 참되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어지러울 뿐, 생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연기는 깊고 분명한 법이다." -중아함경-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일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연기를 본다." 고 하셨으며, "부처님도 이 연기법을 스스로 깨달아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이룬다" 고 하셨습니다. 연기론과 우리 몸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연기란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몸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연기법적 역관(逆觀)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권문세도에 결탁(고려 중기) 하지 않고, 현실참여 신중히 접근하되, 수행 본분사에 진념했더라면 - 참신한 승가 위상이 정착되면서 국교로서 내실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가운데 - 유학의 성리학을 뛰어넘는 구세사상 창출, 도출 (예.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원효의 화쟁(和諍)사상, 나말 도선의 비보(裨補)풍수 및 구산선문의 선풍 고려 국교 정착화 기여) 함으로써 새 시대 창업을 태동시키며 - 유학의 기세를 꺾어 조선왕조 숭유억불의 모진 박해와 멸시의 빌미를 주지 않았을 테고 - 단군사 이래 치욕스런 외세에 국권을 상실한 왕조의 비극 또한 없을 것이며 - 뿐만 아니라 일제의 '한국불교 정신 망치기 작업' , 왜색, 취처, 육식 관습 따윈 멀리할 수 있었으며 - 나아가 개화기 근대화 시기에 발맞춰 승가의 현대식 교육 도입과 인재육성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왜색 불교로 물든 정화작업시, 불량승려 유입은 없었을 것이며 - 개악과도 같은 정화의 후유증, - 주지직을 둘러싼 고질적 부정부패, 사찰분규라는 중병 앓이는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마구잡이로 상좌를 두어 방치하여 함량 미달이라 비난받는 질 낮은 승려 양산의 악순환식 인맥 구조는 아예 발붙일 수 없었을 테고 - 그랬었더라면 진실한 양질의 승가 위상 구현에 의한 - 삼보로서 존경받는 청정 승가의 초석을 다졌을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무의미한 것이라지만, 연기법의 대원칙 하에 인간사 잘 해야 잘 치는 것이요, 잘 못하면 안 된다는 불타사상의 보편적 진리에 입각, 원인에 따른 결과의 산물이 오늘에 입각, 원인에 따른 결과의 산물이 오늘에 펼쳐진 현상임을 인식, 자각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이

토록 힘에 부치는 과제를 두고 어떻게 지혜로써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이 땅의 미래 불교가 명암을 달리함은 자명한 일이다.

과욕해 적은 것으로 만족해서, 많은 것을 탐하지 않고 많은 것을 축적하지 않는다면, 축적함이 없으므로 온갖 재앙에서 멀어지고, 온갖 재앙에서 멀어지므로 여러 괴로움의 모임에서 멀어지고 여러 괴로움의 모임에서 멀어지므로 애욕이 없어지고, 애욕이 없어지므로 능히 온갖 번뇌를 다 끊게 된다. 〈〈보문경〉〉

고대사를 풍요롭게 한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역사는 흐르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 으로 보았고, 토인비는 '지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쇠망하게 된다.' 고 하였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내 삶의 거울이 되고, 오늘의 나는 곧 내일의 나을 있게 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내일의 미래는 어제의 과거를 기반으로 나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치국과 관련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불안 요소에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한다.

"다섯 가지 공포를 없애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라고 했는데 그 다섯 가지 공포란 어떤 것입니까?" 라는 물음에 부처님은 "첫째는, 왕의 인품이 순박하고 진중해서 과세 방법이 공평함으로써 국왕에 의한 수탈의 공포를 없애야 한다. 둘째는, 군인들이 충직하고 현명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음으로써 국왕의 측근들이 횡포를 부리는 공포를 없애야 한다. 셋째는, 관료들이 그 직분을 지키고, 은혜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백성을 대함으로써 부패관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공포를 없애야 한다. 넷째는, 백성들이 모두 도리를 지키고 겸손하며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도둑들이 날뛰는 공포를 없애야 한다. 다섯째는,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교류를 잘 함으로써 침략의 공포를 없애야 한다. 이 다섯 가지 공포를 없애지 않으면 백성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무릇 본능적 행위에만 의존해 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자기 행실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마음(객관적 사유하는 마음)이 있다. 즉 마음으로써 마음을 바라보는 고유기능으로 이는 곧 '현상을 알아차리는 이성에 부합한 주체로서, 이를 다시 말하면, 보는 놈을 보고 듣는 놈을 들 줄 아는, ' 행위하는 주관적인 나'와 '바라보는 객관적인 나', 두 개의 나가 있기에 참회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일로써 똑같은 잘못(과오)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자기 스스로의 다짐인 참회의 '참(慘)' 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창에 찔린 듯 마음이 아픈 양심의 소리를 듣는 데서 느끼는 자책의 부끄러움이고, '회(悔)'는 이미 저지른 잘못을 뉘우쳐 다시는 악을 반복해 짓지 않고 고쳐 선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다.

빠알리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한
고마따 부처님 전생의 십바라밀 이야기⑹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 연재글(제37편)에서는 고따마 붓다께서 현겁전생의 어떤 시기에 '마하고빈다'라는 바라문으로 태어나 7개 왕국의 국가 고문관으로 살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사람들에게 모두 보시하는 내용과 장부의 '마하고빈다 경' **[DN17(mahaagovinda s.)]**에서 소개하는 배경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고따마 붓다께서 현겁전생의 한 때에 '지혜로운 토끼'로 태어났을 때 행하였던 보시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보시바라밀중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보시하는 '최상위 보시바라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생바라밀행장(Cariyā-piṭaka)][1)]

1. 자따까 주석서에 나오는 배경 이야기[2)]

어느 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무신다. 그 때 한 지주가 세존을 상수로하는 500명으로 구성된 비구상가를 초청하여 일주일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지주는 세존과 500명의 비구들에게 필요한 물품들(4가지 필수품)을 제공한다. 그러자 세존은 이러한 보시는 과거의 현자들이 하였던 것이라고 칭찬하며, 과거생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해가며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던 토끼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음은 그 고따마 붓다의 전생의 한 모습인 토끼의 이야기다.

[현겁전생의]한 때, 브라흐마닷따왕이 바라나시에서 통치하고 있었다. 이 때 보살(고따마붓다의 전생)은 토끼로 태어나 숲에서 살고 있었다. 이 토끼보살에게는 세명의 친구가 있었다. 즉, 원숭이, 재칼, 그리고 수달이었다. 이들은 각자 사는 곳에서 먹이를 얻고는 저녁에 함께모였다.그리고 현명한 토끼보살은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포살을 행해야 한다"라고 세명의 친구들에게 충고의 법을 설했다. 그 후, 그들은 각자 사는 곳으

로 돌아갔다.

어느 날 포살 바로전날에, 현명한 토끼보살은 세명의 친구들에게 "계를 지키고, 포살일을 준수하라" 고 말하면서, 구걸하는 어떤 거지든지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주도록 충고한다. 다음날 포살일이 되자, 이들은 아침일찍 먹이를 찾아 나간다.

먼저, 수달이 먹이를 찾아서 강가강[갠지스강]의 강둑아래로 내려간다. 이 때, 어부가 물고기 일곱마리를 잡아 버들가지에 꿴 후, 강둑의 모래에 묻고 더 많은 고기를 잡기위해 강 아래로 내려간다. 수달은 물고기 냄새를 맡고, 묻혀있던 물고기를 꺼낸 후, 주인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세번 크게 소리친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버들가지에 꿰어진 물고기를 물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적당한 때에 먹고자 한다. 그리고 스스로 계율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재칼도 먹이를 찾아 나선다. 재칼은 한 사냥꾼의 오두막에서 고기막대, 도마뱀, 그리고 커드단지를 발견한다. 재칼도 수달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있는지를 크게 세번 외친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누워서 스스로 계율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숭이도 먹이를 찾아 나선다. 원숭이는 나무숲에 들어간 후, 망고를 따서 자기 집에간다. 그리고 나중에 먹기위해 망고를 내려놓으며, 자신이 매우 계율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토끼보살도 먹이를 찾아 나선다. 토끼보살은 꾸사풀을 먹고자 밖으로 나가는데, 정글에 누워서 생각하기를 "만약 어떤 이가 나에게 음식을 요청할 때, 내가 먹는 풀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에게는 쌀이나, 오일같은 것이 없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나에게 먹을것을 요청하면 나는 나 자신의 살을 줄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토끼보살이 결심하자, 삼십삼천하늘의 왕인 제석천의 자리가 뜨거워진다. 제석천은 그 이유를 알고, 토끼보살의 결심을 시험하고자 한다. 제석천은 바라문으로 변신한 후, 먼저 수달에게 가서 포살날이 지난 후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수달은 주겠다고 한다. 재칼과 원숭이 한테도 가서 똑같이 묻자, 그들은 모두 주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바라문으로 변신한 제석천은 토끼보살에게 가서 먹을것을 요청한다. 그러

---

1) 여기의 원문자료는 6차결집본의 로마자 온라인 출판본을 그 근거로한다: CST4: KN-Cp.1:10(sasapaṇḍita-cariyā), vs.125-143. 그리고 번역은 직역과 의역을 혼용한다. 주석서[KN-Cp-aṭk-nidānakathā]에 의하면 이 '전생바라밀행장(Cariyā-piṭakā)'은 붓다께서 정각후 최초로 자신의 고향인 까삘라와투를 방문할 때 '반얀나무숲(nigrodha-ārāma)'에서 이중신통을 보인후 석가족을 위해 '불종성경'을 설하고, 이어서 사리불존자가, '붓다가 되는 실천행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자, 이에 답하기위해 설한 것이라고 한다.

2) 여기의 '지혜로운 토끼'의 최상위 보시바라밀행에 대한 배경이야기는 자따까의 주석서[KN-Jā 4, n. 316-aṭk]를 중심으로 하여 의역 요약하고, 전생바라밀행장의 주석서[KN-Cp.1:10 (sasa-paṇḍita-cariyā)-aṭk]는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언급한다.

자 토끼보살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한다: "바라문이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보시를 할 것입니다. 가서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십시요. 저는 장작불 한가운데로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익으면 저의 살을 드시고, 바라문의 성직을 다하십시요." 라고.

바로 그 때, 제석천은 신통력을 사용하여 장작불을 피운다. 토끼보살은 자신의 꾸사풀집에서 나온 후, 혹시라도 자신의 털에 있을지도 모르는 곤충을 털어내기위해 몸을 세차게 흔든다. 그리고 기쁜마음으로 불더미위로 자신의 몸을 던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토끼보살의 몸은 불에 타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서리내린 지역에 들어간 것 같이 느껴진다. 토끼보살은 바라문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

바라문은 사실 자신은 제석천이고, 토끼보살의 위대한 결의를 시험하고자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자 토끼보살은 "세상의 그 누가 나를 시험해도, 나의 보시의지가 꺾이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

이에 제석천은 "그대의 덕은 1겁동안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산을 부수어 그 산의 가루를 집어서 달의 원판에 토끼의 모양을 새겨넣는다. 그리고 토끼보살을 데리고 그 정글속 집에 두고, 자신은 하늘로 돌아간다. 한편 토끼보살과 세명의 친구들은 행복하고, 화합하며 잘 지낸 후, 자신들의 업에따라 세상을 떠난다.

세존께서 이 전생의 토끼보살이야기를 마치자, 세존과 상가에 1주일간 공양보시를 하였던 사위성의 지주는 수다원과를 성취한다. 그리고 세존은 위의 이야기에서 토끼는 자신이고, 수달은 아난다, 재칼은 목갈라나, 그리고 원숭이는 사리뿟따였다고 밝힌다.

[자따까 주석서 배경이야기 끝]

2. '지혜로운 토끼' 의 [보시바라밀]행 (sasapaṇḍita-cariyā) [3)]

[v. 125]_

다시 내가 토끼였을 때, 산비탈에서 살았다; 나는 풀, 나뭇잎, 야채, 과일등을 먹고 살면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하였다.

[v. 126]_

그 때 나는 원숭이, 재칼, 그리고 어린 수달과 함께 같은 이웃에 살면서; 아침과 저녁에 서로를 만났다.

[v. 127]_

나는 그들에게 선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충고를 했다; '악을 피하고, 선을 고수하라'

[v. 128]_

포살날 달이 꽉 찬것을 보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길: '오늘은 포살날이다' .

[v. 129]_

'보시물들을 준비하고, 보시받을만한 이에게 보시하라; 보시할만한 이에게 보시한 후, 포살날을 준수하라.'

[v. 130]_

그들은 나에게 '좋습니다' 라고 말한 후, 능력에 맞게, 힘 닿는대로; 보시물들을 준비한

후, 보시받을 만한 이를 찾는다.

[v. 131]_

나는 앉아서 '적절하고, 가치있는 보시물'에 대해 생각한다; '만약 내가 보시받을만한 이를 만나면, 무엇이 나의 보시물이 될 것인가?

[v. 132]_

나는 참깨, 완두콩, 강낭콩, 쌀, 정제버터(ghee) 등이 없다; 나는 풀을 먹고 사는데, 풀을 줄수는 없다.

[v. 133]_

만약 어떤 보시받을만한 이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나의 근처에 온다면; 나는 나 자신을 줄 것이다. 그는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v. 134]_

나의 의도를 알고, 제석천이 바라문으로 변신하여; 나의 보시를 시험하기위해 내가 사는 곳으로 다가왔다.

[v. 135]_

나는 그를 보고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음식때문에 나에게 온것은 좋은 일입니다."

[v. 136]_

"이전에 주어지지 않은 뛰어난 보시를 오늘 나는 그대에게 줄것입니다; 그대는 계의 공덕을 갖추었는데,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대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v. 137]_

"자, 와서 많은 나무를 모은 후, 불을 피우십시요; 나는 나 자신을 굽겠습니다. 다 구워지면, 그대는 드십시요.

[v. 138]_

그는 기뻐서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많은 나무를 모았다; 그리고 큰 장작더미를 만들고, 안쪽에 숫불공간을 만들었다.

[v. 139]_

그가 불을 지피자, 그것은 빠르게 큰 불이 되었다; 나는 몸의 먼지를 털고, 한쪽에 앉았다.

[v. 140]_

큰 장작더미가 불타오르고, 연기를 뿜어낼 때; 나는 뛰어서 불길의 한 가운데에 들어갔다.

[v. 141]_

그런데, 마치 시원한 물이 거기에 들어간 누구든지 더위로 인한 피로를 누그러뜨리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v. 142]_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가자,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이; 나의 피로를 풀어주었는데, 마치 시원한 물과 같았다.

[v. 143]_

피부, 가죽, 살, 힘줄, 뼈, 그리고 심장덩어리 등; 나는 나의 온 몸을 그 바라문에게 주었다. [그러나 자따까 주석서의 설명과 같이, 그 토끼는 죽지않고 그 보시의 정신이 높이 기려진다.] 끝.

---

3) 이 게송의 번역은 전생바라밀행장을 근거로 한다.[KN-Cp.1:10 (sasa-paṇḍita-cariyā)]. 이에 상응하는 자따까는 같은 제목으로 전해진다. KN-Jā 4(catukka-nipāto), n. 316(sasa-paṇḍita-jā).

존재간의 법칙 12연기설(緣起說)(6)

불교는 수천년 역사를 지닌 종교로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교리를 갖추고 있다. 불교의 교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고 대중을 상대로 설법하신 내용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려온 고대 인도의 갖가지 사상과 철학들이 녹아들어 있다. 부처님을 본받아 깨침을 얻어 궁극적으로 성불하고자 하는 불자라면 마땅히 부처님 설법의 핵심과 그 의미를 명철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불교의 핵심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차례에 나누어 연재하고자 한다.〈편집자〉

① 무명(無明) ②행(行) → 과거이인(過去二因)이다. ③식(識) ④명색(名色) ⑤육입(六入) ⑥촉(觸) ⑦수(受) → 현재오과(現在五果)라 한다. ⑧애(愛) ⑨취(取) ⑩유(有) → 현재삼인(現在三因)이다. ⑪생(生) ⑫노사(老死) → 미래이과(未來二果)이다.

과거이인(過去二因)과 현재오과(現在五果)가 인연한 것을 과현일중(過現一重)이라 한다. 현재삼인(現在三因)과 미래이과(未來二果)가 인연한 것을 현미일중(現未一重)이라 한다.

과현일중(過現一重)과 현미일중(現未一重)이 합한 것을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라 한다. 즉, 삼세에 걸쳐 인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두 번 반복한다고 해서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라고 한다. 그리고 이상을 깨치면 벽지불이 된다.

12연기 유전문(流轉門) - 붓다는 노병사(老病死)의 괴로움의 원인이 생(生)에 있음을 파악했다. 태어났기에 노병사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삼계의 생사윤회하는 데 두리인 유(有)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시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취(取)에 있음을 알았고, 또 그 원인은 애(愛)……, 이렇게 하나하나 그 원인을 고찰해 올라가다 보니, 결국에는 무명(無明)이 생로병사의 근본원인임을 여실히 알게 됐다. 결국 근본원인은 무명이라고 깨달은 바를 '십이연

기의 유전문(流轉門)' 이라고 부르며, 이런 유전문을 관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한다고 해서 순관(順觀)이라고 한다.

12연기 환멸문(還滅門) - 12연기에 있어서 고(苦)가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곧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마지막에 생이 멸하면 곧 노·사의 우비고뇌(憂悲苦惱)가 멸하느니라." 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환멸문(還滅門)이라 부른다. 이는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며…" 로서, 생사의 근본적인 고통을 극복하려면 무명을 멸해 없앰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형식이 환멸문(還滅門)의 연기, 역관(逆觀)의 12연기라 한다. 괴로움의 원인은 십이연기의 순관(順觀)에 의해 일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은 십이연기의 역관(逆觀)에 의해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12연기는 무명(無明)에서 출발하고, 고(苦)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별로 반가울 것이 못되는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마음챙김의 수행을 통해 무명을 걷어내고, 그 대신 지혜를 출발점으로 해 지혜에 의해 영향을 받는 12연기가 순환하게 된다면, 12연기는 고의 발생과정이 아니라 행복의 순환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명을 바탕으로 한 연기의 순환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은 미혹한 마음으로 인해 표류하고 가라앉는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 그러나 감정이 지혜에 바탕을 두게 되면, 연기법에 의해 자연히 마음챙김, 자유, 그리고 해탈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도 평정과 깨어있음을 바탕으로 한 연기의 순환 속에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연기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속적인 견해와 세속적인 지식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세속적인 견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의지를 넘어서게 된다.』 - 틱낫한

사성제(四聖諦)와 12연기의 관계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苦聖諦)는 오온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귀결되고, 집성제(集聖諦)는 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갈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멸성제(滅聖諦)는 고의 원인을 해소해 실현되는 열반을 뜻하고, 도성제(道聖諦)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설하고 있다. 집성제는 12연기의 유전문(流轉門)에 대한 통찰과 연결되고, 멸성제는 12연기의 환멸문(還滅門)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말은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말과 그대로 일치하고, 이는 다시 팔정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중도를 깨달았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 된다. 따라서 12연기를 다 이해하면 벽지불이 된다고 한다.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

삼세양중인과설은 BC 3세기~AD 1세기경의 부파불교시대에 등장한 연기법 해설방식으로 〈대비바사론(大毘婆娑論)〉과 〈구사론(俱

舍論》, 〈청정도론(淸淨道論)〉 등에 실려 있다.

삼세(三世)란 과거-현재-미래를 의미하고, 양중(兩重)이란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을 말하며, 인과(因果)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말한다. 즉, 삼세에 걸쳐 두 번의 인과를 가지고 윤회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삼세양중인과설을 12연기에 적용시켜보면, 무명(無明)•행(行)이 과거세의 2인(因)이며, 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는 현재세의 5과(果)이고, 애(愛)•취(取)•유(有)는 현재세에 이루어지는 미래세의 3인(因)이며, 생(生)•노사(老死)라는 미래세의 2과(果)를 초래해 괴로운 생존을 되풀이 한다는 견해이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계-무명(無明)
2 단계-행(行)
----------여기까지가 과거 생
3 단계-식(識)
4 단계-명색(名色)
5 단계-육입(六入)
6 단계-촉(觸)
7 단계-수(受)
8 단계-애(愛)
9 단계-취(取)
10 단계-유(有)
----------여기까지가 현생
11 단계-생(生)
12 단계-노사(老死)
----------여기까지가 미래 생

위 표에서 1, 2단계의 무명과 행은 과거 생에서 발생한 인(因)이라 볼 수 있다. 3단계의 식에서 7단계의 수까지가 현생에서 받게 되는 과(果)가 된다. 8단계인 애에서 부터 10단계의 유까지가 현생에서 발생하는 인(因)이 된다.

11단계와 12단계의 생?노사는 미래 생에서 받게 될 과(果)가 된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두 번의 '과(果)'를 받게 되므로 삼세양중인과라 한다. 이와 같이 12연기법은 미혹한 상태에서 업을 지어 괴로운 과보를 받는 중생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삼세양중인과설에 의하면 무명(無明)은 과거의 미혹(迷惑)이고 행(行)은 과거의 업(業)이다. 무명과 행은 과거 미혹한 상태와 그 상태에서 지은 업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과거의 원인에 의해 현재의 식(識)이 형성되며, 그 식에 의해 이름과 형태를 지닌 존재의 세계, 즉 명색(名色)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의 세계를 상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생각된 것을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로 생각하는 가운데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식(識), 명색(名色), 육입(六入), 촉(觸), 수(受)이다. 즉 식, 명색, 육입, 촉, 수는 과거의 두 가지 원인에 의해 그 결과로 나타난 현재에 사는 중생의 다섯 가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중생들은 이렇게 과거의 업에 의해 형성된 식을 토대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형성된 체험의 내용에 애탐(愛貪)을 일으키고, 애탐에

상응하는 것을 취해 자기의 존재를 구성한다. 여기에서 애탐을 일으켜 취하는 것, 즉 애(愛)와 취(取)는 미혹이고, 자기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 즉 유(有)는 업(業)이다.

이러한 애, 취, 유는 미래의 새로운 생(生), 노사(老死)를 일으킨다. 따라서 애, 취, 유는 미래의 생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이 되고, 그 결과 나타난 생, 노사는 미래의 과보가 된다.

이와 같이 과거의 인에 의해 현재의 삶이 나타나고, 현재의 삶에서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탐을 일으키고 취착해 미래의 자기의 존재를 구성하면 이것이 미래의 삶의 원인이 돼 다시 태어나 늙어 죽는 생사윤회가 끝없이 반복된다는 것이 삼세양중인과설이다.

그런데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를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남방 상좌부불교에서 12연기의 무명과 업은 과거생으로 본다. 식에서부터 유까지를 현생으로 본다. 생과 노사는 미래생으로 본다.

따라서 과거의 과보와 현생의 과보 두 가지를 받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라 한다. 즉, 과거·현재·미래의 3세에 걸쳐 과거의 과보와 현생의 과보를 두 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중요한 것은 현생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즉, 식,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단계이다. 이 현생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생에 지은 업은 현생에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대로 업의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생에서의 업은 만들어나갈 수 있다. 그것이 선업일 수도 있고 불선업일 수도 있다. 선업이라면 금생은 물론 미래생의 운명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업에 의존하는 운명론적인 종교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교는 능동적이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역동적인 종교이다. 불교의 12연기와 업의 개념으로 본다면, '신의 뜻' 이나 '운명론' 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금생은 전생의 반영이고, 내생은 금생의 반영이다.

따라서 그 어디에도 업을 짓거나 그 과보를 받을 만한 자아(自我)라는 실체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영원불멸하는 실체가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업과 과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붓다는 초기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과거를 되새기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닥치지 않았다.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법을 매순간 바로 거기에서 통찰하라-맛찌마 니까야"』

삼세양중인과설은 부파불교시대에 등장한 주장으로 12연기설의 가장 완벽한 해석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 불교학자들은 그런 해석은 붓다의 12연기 본래 뜻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계속〉

도리사 전경

신라 최초 가람 도리사(桃李寺)

신라 최초 가람 적멸보궁 도리사는 신라 제19대 눌지왕대(417년)에 고구려의 승려 아도화상이 불교가 없었던 신라에 포교를 위해 처음 세운 신라불교의 발상지이다.

아도화상이 수행처를 찾기 위해 다니던 중 겨울인데도 이곳에 복숭아 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좋은 터임을 알고 이곳에 모례장자의 시주로 절을 짓고 이름을 복숭아와 오얏에서 이름을 따 도리사라 하였다.

신라불교 초전법륜지로 불교의 성지인 이곳은 1976년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하로 올때에 모셔온 세존 진신사리가 세존 사리탑 보수 공사중 금동육각사리함에 봉안되어 발견되었다. 금동육각사리함은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며 국보 제208호로 지정되어 현재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위탁 소장되어 있다.

아도의 어머니 고도녕은 중국에서 온 사신 아굴마와 연정이 깊어져 아도를 낳게 되었다. 그 후, 아도가 다섯 살이 되자 고도녕은 아도를 출가시켰다. 아도가 16세가 되자 아도는 중국으로 가 현창화상 밑에서 수행을 하고 고구려로 돌아왔다. 어머니 고도녕은 아들을 불교가 없던 신라로 불법을 전하라며 보내었다. 당시 신라는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어서 불교 박해가 심했었다. 그는 묵호자란 이름으로 지금의 선산부 도개에 와서 모례장자의 집에 몸을 의지하고 낮에는 일을 하여 도움을 주고 밤에는 사람을 모아 자비로운 불법을 전하였다.

그때, 양나라의 사신이 신라에 향을 예물로 보내왔으나 그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 걱정 해오던 중 모례장자의 추천으로 궁에 들어가 향의 사용법을 알려주길 "향을 불에 태우면 향기가 그윽하여 신성하기가 이를데 없고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다" 하였다. 이에 왕의 공주인 성국공주가 큰 병이 들어있었는데, 왕이 아도화상에게 치료를 청하니 아도화상이 칠일간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 신통하게도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 공덕으로 불교를 전할 기회를 얻었으나, 왕이 세상을 뜨자 아도화상을 해치려 하는 무리들이 공격을 해와 몸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 모례장자의 집에 잠시 머물다 떠나려하자 모례장자가 가는 길을 물었으나 "나를 만나려거든 얼마 후 칡순이 내려올 것이니 칡넝쿨을 따라 오시오." 라는 말을 남겼을 뿐이다.

그 해 겨울 과연 기이하게도 정월 엄동설한에 모례장자 집 문턱으로 칡순이 들어왔다. 모례장자는 그 줄기를 따라가 보았다. 한 겨울인데도 복숭아 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 좌선대에서 아도화상이 정진하고 있었다.

"잘 오셨오. 모례장자. 내 이곳에 절을 세우려 하니 이 망태기에 곡식 두말을 시주하시오."

아도화상은 모례장자 앞에 작은 망태기를 내놓고 시주를 권했다. 모례장자는 기꺼이 승낙을 하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와 곡식 두 말을 망태기에 부었으나 어인 일인지 망태기는 두말은커녕 두섬을 부어도 차지 않았다. 결국 모례장자는 재산을 모두 시주하여 도리사를 세웠다.

아도화상은 절 이름을 복숭아 꽃과 오얏꽃의 이름을 따 도리사라 칭했고 그곳이 바로 신라에 처음 세워진 절 도리사이다.

아도화상은 도리사에서 정진하다 나이가 들어 금수굴에 들어가 열반에 들었다. 지금도 도리사에서는 성국공주의 병을 낫게한 아도화상 동상 앞에서 향을 피워 올리며 가족과 친지들의 쾌차를 위해 기원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가피를 받고 있다.

극락전(極樂殿)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66호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의 주재자인 아미타불을 모시는 법당이다. 정면과 측면이 각 3칸인 팔작지붕 건물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1875년(고종 12) 용해(龍海) 스님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

부 앙서와 상부 익공 및 내부 운궁의 형상이 1870년 중건된 경복궁 근정전의 공포 구성양식과 유사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 말기의 건축특징을 갖추고 있다. 내부에는 1645년(인조 23)에 조성한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876년(고종 13)에 조성한 아미타후불탱을 봉안하고 있으며, 근래에 지장탱과 신중탱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 아미타불(阿彌陀佛) : 정토종 근본경전의 하나인 『무량수경(無量壽經)』에 따르면, 오랜 옛날 법장(法藏)이라는 비구가 48개의 서원(誓願)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18번째 서원에서 자신이 부처가 되면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건설한 정토에 태어나서 열반에 이를 때까지 지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법장은 자신의 서원을 모두 이룬 뒤 아미타불로서 극락(極樂)이라는 서방정토를 주재하게 되었다. 믿음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이 아미타불신앙은 650년경부터 중국에서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여, 곧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慈藏) 스님이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를 저술하면서 정토신앙이 시작되었고, 이후 특정종파를 넘어서 불교신앙의 일반적인 형태로 정착되었다.

적멸보궁(寂滅寶宮)

적멸보궁이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법당을 말한다. 따라서 불상을 별도로 모시지 않고, 법당의 뒤쪽에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을 조성하여 법당 안에서 사리탑을 향해 예배를 올리게 된다. 도리사 적멸보궁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1982년에 주지 법등(法燈) 스님이 사리 예배와 기도를 위하여 건립하였다. 법당 안에서 바라보이는 석가여래사리탑은 1977년 세존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 1과를 봉안하기 위해 1987년에 조성한 것이다.

태조선원(太祖禪院)

스님들이 수행하는 선방으로 정면 7칸, 측면 8칸 규모의 'ㄷ자' 형 건물이다. 근래의 선지식인 전강영신(田岡永信) 큰스님을 비롯하여, 성철(性徹) 큰스님도 이곳에서 정진하였다. 정면에는 「太祖禪院」「桃李寺」 등의 현판이 걸려 있다.

금동육각사리함(金銅六角舍利函)과 사리(舍利) : 국보 제208호

1977년 도리사 세존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함과 그 속에 봉안된 사리이다. 사리함은 육각을 기본으로 하며, 여닫을 수 있어 뚜껑 구실을 하는 육모지붕 모양의 옥개(屋蓋), 여섯 면에 정교한 무늬를 새긴 탑신(塔身), 면마다 안상을 투각한 좌대(座臺)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높이는 17cm, 밑면의 지름은 9.8cm이다. 지붕 모서리마다 귀꽃이 앙증맞게 솟았는데, 그 목에는 작은 고리가 하나씩 감겼고 처마에도 면마다 고리가 하나씩 있어 12개의 고리에 무언가 장식물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에는 제석천, 범천, 사천왕들을 새겼는데 그 선들이 거침없고 유려하면서도 정교하여 매

우 숙달된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리함이 대부분 사각을 기본으로 하는 데 반해 육각의 부도형으로, 신라 부도 및 목조건물의 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사리함에서 나온 사리는 무색투명하고 둥근 콩알만한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리 중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직지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국보 제208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 사리(舍利)는 계·정·혜(戒定慧) 삼학의 결정체로서 부처님의 불생불멸하는 법신체를 의미하며, 모든 중생의 신앙대상이자 귀의처이니 도리사는 바로 불보살의 원력과 가피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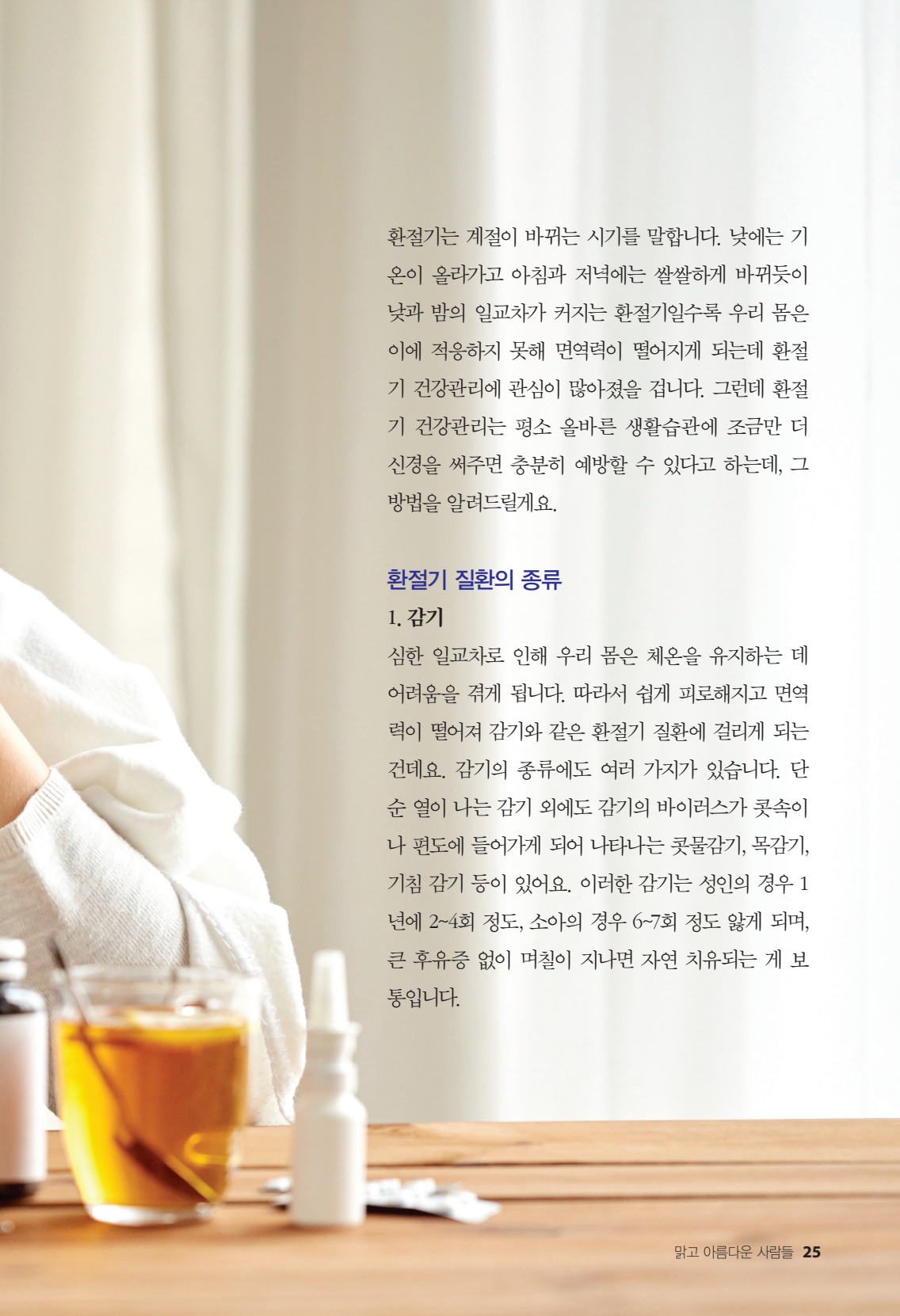
이렇듯 세존사리의 공덕과 가피를 빌어, 위로는 원력을 성취하고 아래로는 공덕을 기르는 것이다.

화엄석탑(華嚴石塔) : 보물 제470호

극락전 앞뜰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전체적으로 5개 층을 이루고 있는데, 맨 아래층은 탑을 받치는 기단으로, 기단 위의 2개 층은 중심부분인 탑신부로 여겨진다. 탑신부의 1층과 2층은 작은 정사각형의 돌을 2~3단으로 쌓아 마치 벽돌을 쌓아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각각 한 면에 문틀을 돋을새김한 널돌을 끼워 문짝모양을 표현한 듯한 점이 주목된다. 위쪽의 2개 층은 머리장식 받침인 노반(露盤)이 포개진 것인지, 윗층만 노반이고 아래층은 탑신부인지 분명히 알 수 없으며, 맨 위의 노반 위에는 연꽃이 조각된 보주를 얹어놓았다.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동일한 유형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이 화엄석탑은 현재 보물 제47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극락전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환절기 건강관리 해결!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말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게 바뀌듯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일수록 우리 몸은 이에 적응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환절기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환절기 건강관리는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환절기 질환의 종류

1. 감기

심한 일교차로 인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에 걸리게 되는 건데요. 감기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열이 나는 감기 외에도 감기의 바이러스가 콧속이나 편도에 들어가게 되어 나타나는 콧물감기, 목감기, 기침 감기 등이 있어요. 이러한 감기는 성인의 경우 1년에 2~4회 정도, 소아의 경우 6~7회 정도 앓게 되며, 큰 후유증 없이 며칠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게 보통입니다.

2. 기관지 질환 또는 피부 질환

또 다른 환절기 질환으로는 기관지 질환과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이 기관지 질환에 해당하며,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피부 질환에 해당하는데요.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먼지도 증가하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집 먼지 또는 진드기 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피부 탄력 저하

건조한 날씨는 우리의 소중한 피부에도 좋지 않아요.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 속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을 약화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곧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방의 분비를 원활하지 않게 하고 땀도 줄어들게 하죠. 따라서 가을철에는 특히나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환절기 질환 예방법

1. 감기 예방법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제철에 맞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 몸의 저항력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2. 기관지 질환 예방법

건조한 날씨는 기관지를 마르게 하는데, 이렇게 기관지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과 음료수를 통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기관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흡연은 절대 금물! 물론 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온도는 20도, 습도는 50~60%를 유지하는 게 좋고, 집안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의 적인 집먼지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소파나 가구를 자주 깨끗하게 물청소해주세요. 물론 가능한 한 천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3. 피부 질환 예방법

피부가 엉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잦은 목욕은 좋지 않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 로션을 발라주세요. 옷을 입을 때도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화학섬유의 제품보다는 순면 제품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방법

특히나 환절기 때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평소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물 많이 마시기

우리 몸은 체내에 수분이 1%라도 부족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만큼 우리 몸과 수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를 만들 때,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세포 내부에 75%의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마시지 않으면 그만큼 에너지도 만들어지지 않아 우리는 쉽게 피로해지게 돼요. 따라서 수분 부족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마시도록 합시다. 참고로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으며, 약간 시원한 물이 체내에 흡수가 빠르답니다.

2. 체온 유지하기

36.5도. 익숙한 단어죠? 바로 우리 몸의 정상온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기서 1도라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약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상온도를 유지해야 하죠. 환절기에 따라 온도에 맞는 옷차림을 입도록 합시다. 가볍고 얇은 가디건을 항상 들고 다녀서 더울 땐 벗고, 추울 땐 입는 식으로 스타일을 꾸민다면 좋겠죠? 그뿐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실내온도와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빨래를 집 안에 널거나 가습기를 켜고,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등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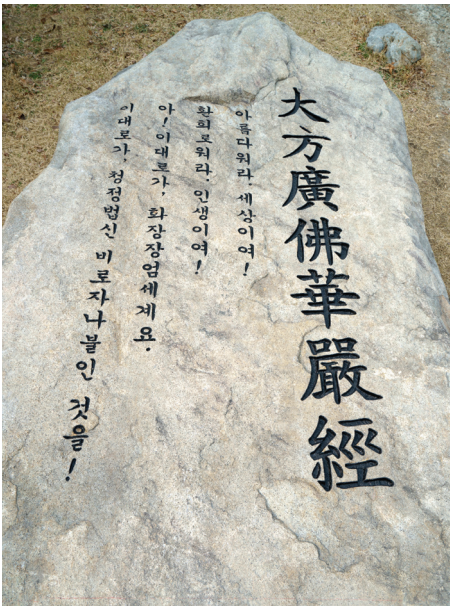
겨울보다 환절기에 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세요. 게다가 환절기 감기가 더 오래간답니다.

딱 산책하기 좋을 만큼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이럴 때 아프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몸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법왕사 소식

법왕사 입구에 창건비문으로 장엄 – 법왕사 해오름 요양원, 대방광불화엄경 등 설치



법왕사 입구에 새로이 석물 3점을 설치하여 법왕사의 정체성을 알리는 역할과 함께 도량을 장엄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먼저 담장 옆에는 이곳이 '법왕사'와 '해오름요양원'임을 알리는 창건비문 이정표를 자연석 조각으로 세웠고, 정문 입구에는 '天下第一說法道場 法王寺'라는 석물을 세워 이곳이 매년 백고좌설법회를 여는 설법도량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大方廣佛華嚴經 찬탄경문'을 세워 화정장엄세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법왕사는 이 세 가지 석물 표지로써 설법과 포교, 불교복지를 통해 화엄세계를 만든다는 크나큰 서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지석 건립불사에 동참하실 가족은 1백만원이며 개인은 1인 5만원의 동참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석물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백고좌 회향에 불심도문스님 보살계수계법회

법왕사에서는 제37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3월 16일 불심도문 스님을 모시고 불명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10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회향법회와 보살계 수계법회로 불심을 다지고 새롭게 정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춤과 법고로 이루어진 하유스님의 특별공연이 있었습니다. 하유스님은 법고를 활용하여 신명나는 춤판을 벌여 법석을 더욱 활기차고 뜻깊게 만들었으며 불자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수계를 받으면서도 색다른 법회 체험을 하였습니다.

춘계 삼사순례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3월 23일 전남 보성군 지리산 대원사, 곡성군 성륜사, 장흥군 보림사에서봄맞이 춘계 삼사순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순례법회에는 모두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대구에서 멀어서 가기 힘든 고찰들을 참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37회 백고좌 영가천도 49재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3월 15일 제37회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봉행한 영가천도 49재를 회향하였습니다. 이번 영가천도에 참여한 1백여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담바라 합창단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법왕사 전속 합창단인 우담바라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담바라합창단은 정무시 선생님기 지휘하는데 사중의 각종 행사에 음성공양을 하고 지역의 각종 불교행사에 참가하거나 합창경연대회에도 나가게 됩니다. 음악활동을 통해 여가선용은 물론이고 신행생활까지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합창단 활동에 관심있는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합창단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한편 거사들로 구성된 중창단도 모집합니다. 중창단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연습합니다.

법왕사 소식

인천 용화사원 송담 큰스님 친견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제38회 백고좌법회 기간인 오는 4월 20일(토) 인천 용화선원에 주석하고 계신 송담 큰스님 친견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백고좌법회 이동법회의 하나로 봉행합니다. 송담 큰스님은 한국 현대 불교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전강 대선사의 제자로 법왕사 회주이신 정무 대종사와 전강스님의 문하에서 수행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은 고령임에도 늘 수행정진하시며 불자들을 위해 친견법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번 법회는 큰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은 4만원이며 출발은 4월 20일 오전 6시 법왕사 주차장에서 합니다.

제38회 백고좌법회 백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30일에 입재하는 제38회 백고좌법회에 맞춰 100일 동안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이번 기도는 회향일인 7월 7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되는데 매일 법회 전에 기도 불공을 올리며 아울러 백고좌 법사스님의 법문까지 듣게 됩니다. 이번 기도의 동참금은 가족기도 10만원입니다. 입재일인 3월 30일에는 하유스님의 춤 및 법고 공연이 펼쳐지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월 30일부터 제38회 백고좌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제38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는 법왕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기 법회로 대한민국 불교계의 법회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삼월삼짇날 영가 합동차례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7일(음력 3월 3일) 삼월 삼짇날을 맞이하여 영가 합동차례를 봉행합니다. 예로부터 삼짇날에는 선망조상과 유주무주 영가를 위한 차례를 지내왔습니다. 이날 차례에는 무한한 공덕이 있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은 영가 1위당 5만원입니다.

문화강좌 난타 수업 신입생 모집

법왕사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열리는 난타 수업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강사는 김진규 선생님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연락은 법왕사 종무소(053-766-3747)이나 김진규 선생님(010-3217-3675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무료급식 동참 및 후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무료급식에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동참 방법은 무료급식 울력에 동참하셔도 되고 후원금을 내셔도 됩니다. 봉사활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급식 시간에 공양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 대구은행 505-10-203686-3 자비회로 하셔도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김유지 장성재

물품 보시하신 분

김천엽(화장지) 방지현(깨소금, 참기름)
신진정밀 김기수(바디케어, 샴푸) 최용석(계란)
신병기(스님 승복) 석암스님(쌀 20킬로, 김)
사공순옥(스님 승복) 서모란화(세제)

사보 도움주신 분

권영효 여석구

스님 승복

김근태 대원화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제갈욱(초하루) (백고좌 회향) 김유지 양혜진
박준영 진상형 김외숙 권중훈 심보현 신용흥
정민수 성재윤 김종황 양봉률 이윤술 박순천
대중공양 亡 강분자 영가(2회) 亡오계식 영가

◎ 떡공양 올리신 분

방지현 김선우 강춘희 김종호 김종황 우재현
김정옥 전대곤 양봉훈 이종랑 김호연 신명균
김분용 亡이춘식 영가 김주현 김영숙 신동애
박정숙 김영숙 양봉훈(본당) 양봉률(본당)
황일심법

◎ 꽃 공양 올리신 분

장성재

◎ 과일공양 올리신 분

김영숙 이상봉 이임섭 신재국 신동욱 최종열
문지수 전진홍 채의진 김윤주 전재술 윤동현
이주애 김선우 강춘희 양혜진 양봉훈 김윤옥
김수란 장백련화

연등올리신 분

◎ 단청등 올리신 분

24 금건수

◎ 1년등 올리신 분

298 신창진 299 박경훈 300 권순표 301 권달오
302 김점행 303 장기면 304 박창원 305 유종건
306 윤귀웅 307 나채준 308 황보일 309 주순옥
310 이상호 311 이종환 312 권기협 313 권창훈
314 김종황 315 이상봉 316 권오암 317 박승우
318 김우현 319 김두섭 320 박명근 321 박경옥

◎ 꽃등 올리신 분

54 최재훈 58 여나경 59 전재술 60김호연
61 최남구

◎ 영가등 올리신 분 [복위자]

42 홍원진 43 강정선 44 유기상 45 오병화
46 이정숙 47 김영애 48 최재훈

◎ 산신인등 올리신 분

14 김경찬

불사 올리신 분

◎ 범종불사 올리신 분

신구자 신나현

◎ 비문 불사 올리신분

방지현 염길태 염보라 염흥식 이현진 김정남

권중훈 권민지 권태형 이태훈 권도형 김민철
배정현 김하균 김익균 백보현행

◎ 문수보살, 보현보살 올리신 분

신나현

◎ 본당 인등 올리신 분

154 김점행 217 우종원 218 이정자 219 우병헌
220 배태준 227 김종열 228 김인숙 229 김지연
230 김기로 292 정성욱 293 정영욱 390 이재석

◎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

144 조광호 145 김점행 347 김민수 172 류윤만
173 류희승 174 류주연 178 류주연 346 박서빈
380 유재은 381 박성률

◎ 만불전 인등 올리신 분

256 亡 백남희 257 亡 이춘옥 258 亡 이만호
259 亡 이노미 260 亡 이희문 261 亡 전을식
262 亡 류홍렬 263 亡 김순애 264 亡 함영봉
265 亡 박원이 266 亡 함한호 267 亡 강희완
268 亡 이대홍 269 亡 김금순 270 亡 이재달
271 亡 김원동 272 亡 이천녀 273 亡 김상훈
274 亡 박한수 275 亡 박완수 276 亡 오계식
277 亡 강분자 278 亡 김봉남 280 亡 김경원
281 亡 채관불 282 亡 남형철 283 亡 손진순
284 亡 이상우 285 亡 지태순 286 亡 권선오
286 亡 최양해 287 亡 김재훈 287 亡 남공명화
288 亡 김창홍 289 亡 이재순

◎ 원불

256 亡 백남희 257 亡

◎ 오백나한 불사 올리신 분

161 박서빈(도세존자) 162 배정현(명조존자)

◎ cms 올리신 분 (~2/19)

강유주 1만원 강춘희 2만원 김관용 5천원
김달준 4만원 김명선 2.5만원 김성미 5천원
김성자 1만원 김수남 3천원 김수라 3만원
김연자 1만원 김옥자 1만원 김이규 6천원
김제순 8천원 김현숙 8천원 류윤형 1.5만원
백승연 3천원 서필희 1만원 성점순 1만원
손향숙 2만원 송순분 2만원 송윤선 7만원
신인숙 5천원 심영선 1.5만원 안진미 6만원
오창혁 1만원 오현규 1만원 이호진 1만원
장명희 5천원 장미야 4천원 전성복 1만원
전재필 5천원 전태일 5만원 정순희 2만원
정연이 10만원 정연이 8천원 정재순 3만원
조희선 2만원 최진석 5천원 한천숙 1만원
현미숙 1만원 홍경숙 1만원 황금석 7천원
사공순옥 3만원

왕생극락하옵소서

◈ 亡 김진희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 1일에 있었습니다.
◈ 亡 최종률영가님의 천도재가 3월 1일에 있었습니다.
◈ 亡 이춘옥영가님의 초재가 3월3일에 있었습니다.
◈ 亡 정상화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 6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증덕영가님의 초재가 3월 7일에 있었습니다.
◈ 亡 허명수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상훈영가님의 초재가 3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亡 김봉남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11일에 있었습니다.
◈ 亡 채관불영가님의 막재가 3월17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 요양원 소식

행복한교육이야기

행복한교육이야기 봉사단은 무기력하고 활동력이 부족한 어르신들께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가벼운 움직임과 손가락의 소근육 운동을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봉사단의 도움으로 하나의 작품을완성하시면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동그라미색소폰 공연

동그라미색소폰 봉사단이 색소폰연주와 노래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주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동그라미색소폰 봉사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신을 축하합니다

3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서윤수 어르신, 백남현 어르신의 생신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께서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케이크와 다과를 나누어 드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성시니어클럽 공연

수성시니어클럽 봉사단이 국악, 노래, 색소폰등 다양한 공연으로 어르신들께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활짝 미소를 지으시며 어느새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십니다. 수성시니어클럽 봉사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무하스님(웃음치료), 지은정(미술치료), 이정신·신계영(마술공연)

| 단체 정기봉사자 | 동그라미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달성아리랑보존회(수성구자원봉사센터),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HE봉사단(놀이치료),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앙상블공연단(공연활동), 일곱빛깔하모힐링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수선화(이미용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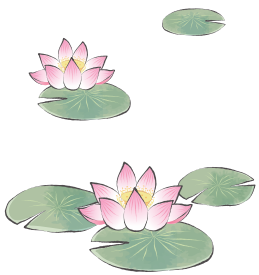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권순득 2만원
김명옥 2만원
김순덕 2만원
김양순 2만원
김옥경 2만원
김진숙 2만원
김필남 2만원
서동남 2만원
시명숙 2만원
신귀화 2만원
양희숙 2만원
이명숙 2만원
이윤정 2만원
이정자 2만원
정숙희 2만원
최영희 2만원
황영희 2만원
강병철 1만원
강소남 5천원
강영도 2만원
고연숙 1만원
고재욱 2만원
구정대 2만원
권순영 1만원
권순칠 1만원
권영철 5천원
권오관 2만원
권오국 1만원
권지현 2만원
권춘자 3만원
금명섭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경희 2만원
김기덕 2만원
김기수 2만원
김대현 5천원
김만기 5천원
김명숙 1만원
김미자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민주 1만원
김봉숙 5천원
김수곤 5천원
김수라 1만원
김수자 1만원
김숙희 1만원
김순연 5천원
김영애 1만원
김영호 1만원
김옥희 5천원
김외환 1만원
김용태 1만원
김원형 3만원
김정규 5천원
김정숙 5천원
김정순 3만원
김정자 5천원
김진성 1만원
남기웅 1만원
노수정 1만원
류윤만 1만원
류혼자(지일) 5천원
문성섭 1만원
박경란 1만원
박경자 5천원
박남희 3만원
박대희 5천원
박동규 5천원
박성숙 5천원
박성은 5천원
박수진 1만원
박순영 5천원
박원태 1.5만원
박인철 1만원
박종규 1만원
박종환 1만원
박희조 5천원
반룡사 1만원
방지현 1만원
배수현 2만원
배하수 1만원
사공관 2만원
서준석 (성인자)1만원
서준석 (성인자)1만원
서찬수 1만원
성기옥 1만원
손수연 1만원
송민경 1만원
송재욱 1만원
송정숙 5천원
신구자 5천원
신돈식 1만원
신충호 5천원
신홍준 1만원
신화식 1만원
심규암 5천원
여미란 2만원
이경자 1만원
이경자 1만원
이용욱 1만원
이인순 5천원
이임숙 2만원
이재봉 5천원
이전희 5천원
이정연 5천원
이정옥 1만원
이정화 1만원
이정희 5천원
이정희 3만원
이준우 5천원
이창수 1만원
이현옥 1만원
이호동 5천원
장민석 1만원
장성규 5천원
장시원 1만원
장우성 1만원
장재혁 5천원
장찬규 5천원
전상우 봉평메밀 2만원
정경석 2만원
정경숙 1만원
정명선 2만원
정민경 1만원
정순옥 5천원
정시영 1만원
정연이 5천원
정옥수 5천원
정인순 5천원
정태교 5천원
정혜숙 1만원
조규인 1만원
조성자 5천원
조영석 1만원
조인성 5천원
진봉희 1만원
채옥연 5천원
최금부 1만원
최분규 1만원
최영희 1만원
최윤희 5천원
최창숙 5천원
한규매 1만원
한희록 1만원
허유미 5천원
호산반점 (박남숙) 1만원
홍기학 1만원
황내환 1만원
황미선 2만원

합계 : 1,845,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박재용 3만원, 강미경 1만원, 김진숙 4만원
임상덕 1만원, 이영주 3만원

◎ 지출내역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이크 구입비	: 76,000원
우편발송비	: 12,780원
물품구입비	: 1,542,900원

총지출 : 1,720,18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000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손영숙 보호자 : 단팥빵
김창복 보호자 : 카프리썬 2박스

◎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사자

000

◎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소어르신

한영수어르신, 류정애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김필남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 중국 불교성지 순례단 모집

법왕사에서는 2019년 초파일 직후 중국의 불교성지를 두루 탐방하는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참배할 성지는 중국 관음성지인 절강성 보타 낙가산, 지장성지인 안휘성 구화산, 문수성지인 산서성 오대산과 최근 새로운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난징의 우수산 불정궁입니다.
이미 2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선착순 15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일정 **2019년 6월 12일 ~ 6월 20일(8박9일)**
성지 **보타 낙가산, 구화산, 오대산, 불정궁**
회비 **150만원 정도**
인원 **15명 선착순**

(상단부터) 보타 낙가산 | 구화산 | 오대산 | 불정궁

법왕불교대학 특강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깊이 있는 불교 공부를 위해 '부처님의 생애'와 '아함경'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아함반은 30년 동안 아함경을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부처님의 생애 강좌는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관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함경
연담스님 | 제주 천제사 주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부처님의 생애'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불교기초강좌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위빠사나 명상 강좌
도경스님 | 조계사 불교대학 강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시

봉사단체 자비회 회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사중에서 각종 봉사활동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활동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기도 후 법문을 듣고 공양 후 사중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자격 **남녀 구분 없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모임**
- 무료급식 **매주 수요일 11시 ~ 1시**
- 무료급식 동참 계좌
  대구은행 505-10-203686-3 자비회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서각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약력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북부도서관 문화강좌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난타
- 강사 : **김진규 선생님**
- 약력 : 대구 타악연구원 대표
  국악 모듬 북 최고 지도자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회비 : 3만원

색소폰
- 강사 : **박성권 선생님**
- 약력 : 참사랑 색소폰 클럽 원장(현)
  참사랑 문화예술 봉사단 단장(현)
  달서구 찾아가는 문화마당 출연
  청송군민 위한 음악회 출연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회비 : 3만원

| 기해년 2019년 소원성취 |

법당 일년등 · 사업등 동참 받습니다

-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 돌아가신 분들께는 왕생극락 등을
-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심의 등을
-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 부모님께는 보답의 등을
-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수험생에게는 학업성취의 등을
-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 사업등 – 100만원 | 가족등 – 10만원 | 영가등 – 5만원
■ 문 의 : 종무소 766–3747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서각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약력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북부도서관 문화강좌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난타
– 강사 : **김진규 선생님**
– 약력 : 대구 타악연구원 대표
국악 모듬 북 최고 지도자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회비 : 3만원

색소폰
– 강사 : **박성권 선생님**
– 약력 : 참사랑 색소폰 클럽 원장(현)
참사랑 문화예술 봉사단 단장(현)
달서구 찾아가는 문화마당 출연
청송군민 위한 음악회 출연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회비 : 3만원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수시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 · 중 · 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특강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반 2019년 3월 13일 개강 **중급반** 2019년 3월 20일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특강반	영일스님	부처님의 생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특강반	도경스님	위빠사나 명상 강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시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8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제38회 백고좌법회를 2019년 3월 30일부터 2019년 7월 7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제38회 백고좌법회 입재법문

- 일시 2019년 3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자광스님(대구보현사 회주)

송담큰스님 친견 이동법회

- 일시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 장소 인천 용화선원
  경기도 광주 용화선원
- 출발 당일 오전6시 법왕사 주차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3월 30일 土	자광스님	대구 보현사 회주	11일차	4월 9일 火	경성스님	합천 해인사 율주
2일차	3월 31일 日	대주스님	부천 대륜사 주지	12일차	4월 10일 水	동봉스님	광주 우리절 주지
3일차	4월 1일 月	현각스님	원주 성불원장	13일차	4월 11일 木	혜조비구니스님	서울 관음암 주지
4일차	4월 2일 火	노휴스님	공주 행복도량 주석	14일차	4월 12일 金	일장비구니스님	화순 유마 승가대학장
5일차	4월 3일 水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주지	15일차	4월 13일 土	혜성스님	함안 삼불사 주지
6일차	4월 4일 木	양관스님	동화사 승가대학장	16일차	4월 14일 日	성행스님	의왕 청계사 주지
7일차	4월 5일 金	주지스님		17일차	4월 15일 月	여현비구니스님	서울 동국대 교수
8일차	4월 6일 土	오경스님	안동 보경사 주지	18일차	4월 16일 火	해월스님	팔공산 반조암주지
9일차	4월 7일 日	정원스님	봉선사 능엄학림학장	19일차	4월 17일 水	각묵스님	남원 실상사 주석
10일차	4월 8일 月	동훈스님	대구 삼보사 주지	20일차	4월 18일 木	일우스님	대구 성관음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